



5<sup>th</sup> Week, August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Vol. 5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생산, 국비, 서비스, 기초자치단체, 정비사업, 기본계획
경제·관광	여행, 생산, 조수입, 품목, 항공, 재배
지역·사회	태풍, 열대야, 범죄, 단속, 예술

※ 분석 기간 : 8월 26일~8월 30일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8 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생산	- 제주 1차산업 조수입 증가 - 메밀 신품종 실증 시험
	국비	- 국비 확보 성과 -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서비스	- 추석 연휴 항만 서비스 강화 - 농어촌진흥기금 용자 확대
	기초자치 단체	- 행정체제 개편 추진
	정비사업	- 노후 상수관망 정비 - 하수도 정비사업 확대
	기본계획	- 15분 도시 제주 구상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9~10 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여행	- 제주 여행 관심도 하락 - 나의 제주 여행 코스 이벤트 진행
	생산	- 채소류 조수입 증가
	조수입	- 제주 농산물 조수입 기록
	품목	- 그린향 감귤 홍보 강화
	항공	- 제주공항 활주로 폐쇄 사고
	재배	- 레드치커리 재배 실증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1 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태풍	- 제10호 태풍 '산산' 복상
	열대야	- 역대 최장 연속 열대야 기록
	범죄	- 총기류 발견 사건 - 디지털 성범죄 조사
	단속	-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예술	- 예술 행사 및 지원 확대

##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 중국

- ✓ 하이난성은 8월 30일부터 관광객 유입과 면세 소비 활성화를 위해 총 2,400만 위안 규모의 ‘항공권+면세’ 소비 쿠폰을 발행함. 이 프로모션은 하이난항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10월까지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되며, 추가 항공사도 참여 예정
- ✓ 중국 무역촉진회(CCPIT)는 9월에 《2024 중국 무역촉진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주요 연락 기업 명록》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신청 기업 수가 30% 증가하고 최초로 해외 기업을 포함
- ✓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8월 29일 《중국의 에너지 전환》 백서를 발표하여 지난 10년간의 에너지 전환 성과와 실천 방식 공유
-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중앙사이버공간관리국은 인적 자원 시장의 규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여, 허위 채용, 개인정보 유출, 고용 차별, 불법 요금 부과 등의 문제를 해결 조치 강조
- ✓ 상하이시는 도시 관리의 현대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상하이 도시 관리 정밀화 3년 행동 계획(2024-2026년)》을 발표함. 이 계획은 거주 환경 개선, 공공 공간 및 교통 서비스 강화, 무장애 환경 구축, 녹색 저탄소 발전,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디지털 관리 등 6대 부문, 31개 과제로 구성되며, 국제적 수준의 도시 관리 정밀화 사례 구축을 목표로 설정
- ✓ 한국 B2B 플랫폼 도매꾼이 산둥성 웨이하이 경제개발구에 중국 첫 중한 크로스보더 인큐베이션 센터를 설립함. 센터는 플랫폼 입주비 면제 등 특별 정책으로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품 홍보, 운영 관리, 인재 육성, 공급망 통합 등을 통해 중국 제품과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에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기여 예정

## ○ 태국

- ✓ 태국은 2024년 추석 연휴에 최소 2만 3,000명의 한국인 관광객을 기대하며, 올해 약 122만 명이 방문함. 관광청은 대형 여행사와 협력하고, '태국 골프 트래블 마트 2024'와 로드쇼를 통해 한국인 유치 강화
- ✓ 태국은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8개 정부 기관으로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불법 물품 유통 방지와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저가 수입품으로 태국 제조업이 타격을 받아 약 2,000개 공장이 폐쇄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도입과 태무의 지방세법 준수 문제도 논의 중

##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정 강화를 위해 GST 재도입을 검토 중이며,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내각에서 논의 중이나 구체적 계획은 미정임. 2015년 도입된 6% GST는 2018년 폐지되었고, 대안으로 RON95 휘발유 보조금 제거가 제안
- ✓ 사바 주정부는 2040년까지 산업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더 비즈니스 쇼 아시아'에서 사바를 홍보

## ○ ASEAN

- ✓ 중국 상무부는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3.0 협상을 가속화하여 상품 무역, 투자, 디지털 및 녹색 경제를 포함한 역내 경제 통합을 촉진할 계획임. FTA 3.0은 산업체인 협력을 강화해 외부 리스크 완화를 기대하며, 2023년 기준 중국의 중간재 수출은 전체 수출의 47.3% 차지

## ○ 싱가포르

- ✓ 싱가포르는 방콕에서 열린 제1차 싱가포르 교육 박람회에서는 태국과의 교육 협력을 강조하며, STEP 캠프와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을 논의함. 약 70개 싱가포르 학교가 태국 교육기관과 협력해 교류 프로그램, 인턴십,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며, 매년 약 200명의 싱가포르 인턴이 태국에서 학습 기회 제공

-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JS SEZ)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첨단 기술 분야의 FDI를 유치하고, 투자자들에게 '그린 레인'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할 예정

## ○ 베트남

- ✓ 베트남은 낮은 임금과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의 기업들을 유치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미-베트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따라 중국의 대안 시장으로 주목

## ○ 필리핀

- ✓ 필리핀-중국 상공회의소 연합회는 필리핀에 투자와 첨단 기술 유치를 위해 마닐라만 지역 개발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경제 허브로 자리 잡아 필리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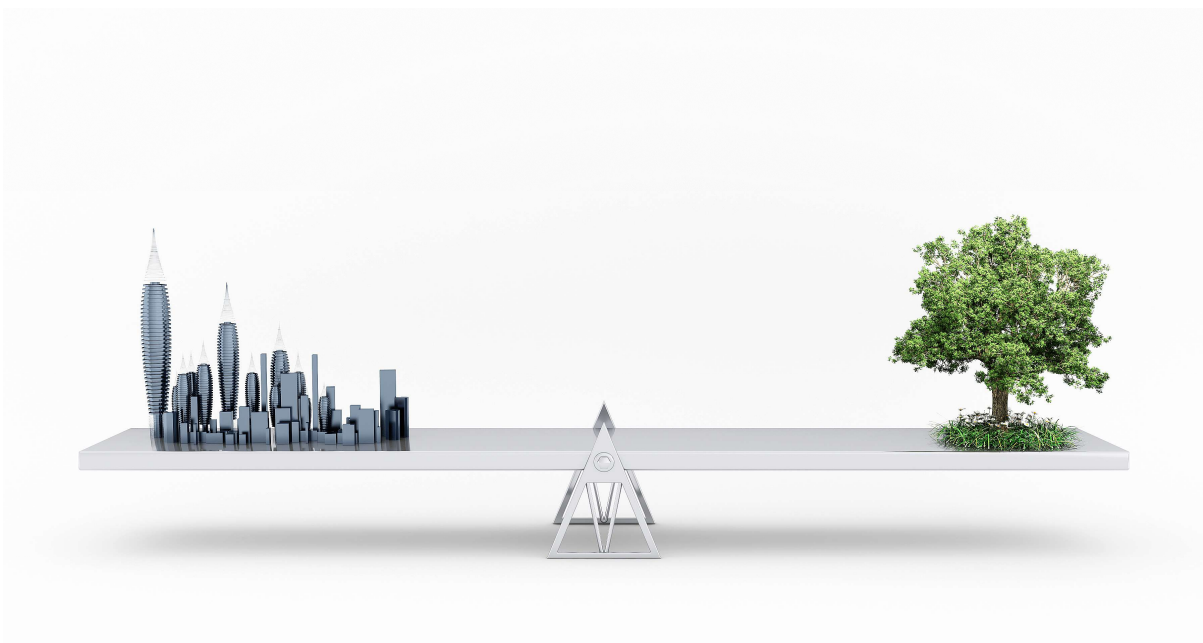
## ○ 일본

- ✓ 센다이시 인근에서 대기업들이 최신 물류 시설을 활발히 건설 중이며, 이는 2024년 문제와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임. 자동화와 AI 기술을 적용한 물류 허브는 도호쿠 지방 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 이바라키현은 외국인 유학생의 현 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1개 단체로 구성된 '이바라키현 유학생 취업 촉진 컨소시엄'을 발족하여, 세미나와 교류회, 인턴십 등을 통해 유학생의 현 내 취업 지원 중
- ✓ 일본 산악 보전 서밋이 야마나시현 호쿠토시에서 개최되어 등산로 황폐화 문제와 자연 친화적 복원 필요성이 논의됨. 참가자들은 보전 활동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 촉구
- ✓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IR)는 관서 지역의 관광객 분산을 위해 테마별 순환 관광 플랜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서 관광본부와 협의할 계획임. 이 플랜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예정

## Contents

---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1 언론분석: Word Cloud

- 2024년 8월 26일~8월 30일 기간, 제주 주요 7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 분야의 관련 보도 총수는 약 756건임
  - 이 중 정치·행정 분야 뉴스 207건, 경제·관광 분야 231건, 지역·사회 분야 318건임
  - \* 제주 대표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207건 정치·행정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생산, 국비, 서비스, 기초자치단체, 정비사업, 기본계획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정치·행정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1차산업 조수입 증가</li> <li>· 2023년산 제주 농수축산업 조수입이 전년 대비 6.6% 증가한 4조 8,873억 원을 기록함</li> <li>· 감귤과 채소류 생산량 증가 및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임</li> <li>- 메밀 신품종 실증시험</li> <li>· 신품종 '햇살미소'의 농가 실증시험이 진행됨</li> <li>· 수량이 많고 재배 안정성이 높아 향후 농가 보급 확대 기대됨</li> </ul>
	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확보 성과</li> <li>·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 9714억원의 국비 확보, 이는 전년 대비 1344억원 증가한 수치임</li> <li>· 주요 확보 사업에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이 포함됨</li> <li>-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li> <li>·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1795억원 확보</li> <li>· 상수도과 하수도 관련 현대화 사업 추진 중임</li> </ul>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석 연휴 항만 서비스 강화</li> <li>· 추석 연휴를 맞아 여객 수송과 항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별상황실 운영함</li> <li>· 여객선 및 터미널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함</li> <li>-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확대</li> <li>· 지역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에 융자 지원을 확대하여 침체된 경제 지원함</li> <li>· 융자 규모를 275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전국 최저 수준인 0.7% 유지함</li> </ul>
	기초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체제 개편 추진</li> <li>·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임</li> <li>· 타 지역에서의 행정 통합 무산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됨</li> </ul>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상수관망 정비</li> <li>·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국비 91억원을 확보하여 다수 지역에서 정비 사업 추진 중임</li> <li>· 상수도 및 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해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함</li> <li>- 하수도 정비사업 확대</li> <li>· 하수도 관련 정비사업에 총 63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및 관로 정비가 진행될 예정임</li> </ul>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분 도시 제주 구상</li> <li>·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li> <li>· 생활 필수 기능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단체 공모 진행 중임</li> </ul>

- 231건 경제·관광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여행, 생산, 조수입, 품목, 항공, 제배 등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Cloud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경제·관광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여행 관심도 하락</li> <li>· 2023년 제주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역대 최저치인 29%로 하락함</li> <li>· 강원도와의 경쟁 심화로 제주를 대신해 강원도로 여행지를 바꾸는 사례가 늘어남</li> <li>- 나의 제주 여행 코스 이벤트 진행</li> <li>· 제주관광공사가 제주항공과 함께 ‘나의 제주 여행 코스 추천!’ 이벤트를 진행함</li> <li>· 참여자는 여행 코스를 추천하면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음.</li> </ul>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소류 조수입 증가</li> <li>· 2023년 제주지역 채소류 조수입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6551억원을 기록함</li> <li>· 월동무, 당근, 양배추 등의 조수입이 크게 증가했음</li> </ul>
	조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농산물 조수입 기록</li> <li>· 2023년 제주지역 농산물 조수입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함.</li> <li>· 감귤, 채소류 등의 생산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임.</li> </ul>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지역·사회	<b>태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호 태풍 '산산' 부상</li> <li>·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향해 부상 중이며, 제주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li> <li>· 강풍과 폭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해상 안전과 시설물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가 내려짐</li> </ul>
	<b>열대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대 최장 연속 열대야 기록</li> <li>· 제주 북부 지역에서 45일 연속 열대야가 발생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함</li> <li>· 연속 열대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100명을 넘어섰으며, 지속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9월 초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li> </ul>
	<b>범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기류 발견 사건</li> <li>· 제주시 공영주차장에서 레저용 총기류와 실탄이 담긴 가방이 발견됨.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모의 총기류로 판명되었으나 불법 여부 조사 중임</li> <li>- 디지털 성범죄 조사</li> <li>· 제주 지역 학교 이름이 포함된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 SNS에 확산됨. 경찰은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신고는 아직 없음</li> </ul>
	<b>단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li> <li>· 제주 자치경찰단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며,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착색 감귤 유통 사례를 중점적으로 단속함</li> </ul>
	<b>예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 행사 및 지원 확대</li> <li>· 제주 지역 예술 지원 및 행사 개최가 활발히 진행 중임. 예술가 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됨</li> <li>· 특히, 전통 예술과 현대 미술이 결합된 전시회와 워크숍 등이 제주도 전역에서 열리고 있음</li> </ul>

##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하이난, 2,400만 위안 ‘항공권+면세’ 소비 쿠폰 발행

- 하이난성은 8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총 2,400만 위안 규모의 ‘항공권+면세’ 소비 쿠폰을 발행했으며, 이 중 900만 위안은 항공권 소비 쿠폰, 1,500만 위안은 면세 소비 쿠폰임. 하이난성 상무청은 이번 조치가 하이난으로의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면세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이 프로모션은 ‘치우징쑤어아이 항공권 면세 내가 책임진다’ 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항공권과 면세 소비 쿠폰은 매일 한정 수량으로 발행되며, 10월까지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됨. 하이난 항공의 골드펑 클럽 회원으로 등록하고 인증을 완료한 후, 1위안으로 총 500위안의 항공권 소비 쿠폰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음. 이 패키지는 500위안 이상 구매 시 400위안 할인, 800위안 이상 구매 시 100위안 할인 쿠폰을 포함함. 다만, 소비 쿠폰은 공항 건설비와 연료 추가비는 감면되지 않음
- 항공권 소비 쿠폰을 이용해 하이난으로 입도하고 일정 확인 후 500위안 면세 소비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이난의 면세점에서 2,000위안 이상 구매 시 500위안 할인을 받을 수 있음. 이번 프로모션에는 하이난 항공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항공사들이 참여할 예정임. 하이난 면세점들도 이번 프로모션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함

\* 출처: 中国新闻网

○ '2024 중국 무역촉진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주요 연락 기업 명록' 9월 공식 발표 예정

- 8월 30일, 중국 무역촉진회(CCPIT)는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왕린제 대변인이 2023년 처음 발표된 《중국 무역촉진회 크로스보더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주요 연락 기업 명록》을 기반으로 2024년 명록을 새롭게 편찬하여 9월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번 명록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외환업태의 건 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준비됨

- 2024년 명록은 종합 서비스, 규제 준수 서비스, 금융 및 결제 서비스, 크로스보더 무역, 디지털화 및 부가가치 서비스, 세무 및 관세 서비스, 물류 및 창고 서비스 등 다양한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음. 명록은 중영 이중 언어로 기업명, 상표, 웹사이트, 사업 범위, 연락처 등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함
- 명록의 주요 특징은 두 가지로, 첫째, 기업 수와 사업 범위가 더 다양해졌으며, 신청 기업 수는 작년 대비 약 30% 증가함. 둘째, 최초로 해외 기업이 포함되어, 명록의 참조 가치와 국제적 영향력이 더욱 높아짐

\* 출처: 中国新闻网

### ○ '중국의 에너지 전환' 백서 발표

- 8월 29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국의 에너지 전환》 백서를 발표하며, 지난 10년간 중국의 에너지 전환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성과와 실천 방식을 공유함.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18차 당대회 이후 에너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으며, 에너지 안전 신전략을 바탕으로 중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전환의 길을 걸어왔다고 밝힘
- 백서는 중국이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경제 사회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설명함. 그러나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 1인당 에너지 소비 수준이 낮고, 산업화 및 도시화가 미완성 상태이며, 앞으로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도전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함.

- 백서는 중국의 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발전 방식과 동력을 전환하여 주력 에너지를 화석 에너지에서 비화석 에너지로 교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힘. 이는 자원 환경 제약을 해결하고, 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새로운 과학 기술 및 산업 변혁의 기회를 잡고, 녹색 생산과 생활 방식을 형성하며,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임. 중국의 에너지 전환은 외부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이며,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강조됨

\* 출처: 中国新闻网

### ○ 中, 인적 자원 시장 관리 강화에 관한 지침 발표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중앙사이버공간관리국은 《인적 자원 시장 규범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허위 채용, 개인정보 유출, 고용 차별, 불법 요금 부과 등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조치를 제시함. 이번 지침은 인적 자원 시장의 진입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직업 중개 활동을 철저히 심사하며, 채용 정보 관리와 데이터 안전,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요구함
- 《통지》는 고용 차별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차별적 채용 정보의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 정보 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함. 또한, 시장 서비스 요금 부과 행위를 규범화하고 명확한 요금 기준을 제시하며, 현장 채용의 안전 관리와 인적 자원 시장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함
- 구직자 교육과 안내를 통해 권익 보호 인식과 위험 방지 능력을 높이고, 신뢰 교육을 통해 구직자의 직업 신용 관리를 강화하여 인적 자원 시장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함

\* 출처: 中国新闻网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 상하이, 새로운 3년 도시 관리 정밀화 행동 계획 시행

- 상하이는 도시 관리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하이 도시 관리 정밀화 3년 행동 계획(2024-2026년)》을 발표함. 이번 계획은 6대 부문, 31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 환경 품질 향상, 공공 공간과 교통 서비스 개선, 무장애 환경 구축, 녹색 저탄소 발전과 생태 도시 건설,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디지털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됨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상하이는 두 차례의 3년 행동 계획을 통해 공원 589개, 녹지 길 1,322킬로미터를 추가 조성하고, ‘아름다운 거리’ 657곳을 만들었으며, 황푸강과 쭈저우강의 수변 공공 공간 101킬로미터를 개선함. 또한, 주거지 개조와 엘리베이터 설치, 아름다운 농촌 시범 마을과 시골 진흥 시범 마을 조성 등의 성과를 이룸
- 새로운 3년 계획은 《상하이시 도시 관리 정밀화 14차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도시 관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안전 관리와 위험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디지털 관리 및 공간 공유 확대를 목표로 함. 상하이의 특성을 살리고 국제적 수준에 맞춘 도시 관리 정밀화 우수 사례를 구축할 예정임

\* 출처: 中国新闻网

### ○ 韓 도매꾼, 중국 첫 한중 크로스보더 인큐베이션 센터 웨이하이 경제 개발구에 설립

- 한국 최대의 B2B 플랫폼인 도매꾼(Domeggook)은 중국 첫 한중 크로스보더 인큐베이션 센터를 웨이하이 경제개발구의 스마트 밸리 서비스 무역 산업단지에 설립하며, 이를 통해 웨이하이의 지리적, 정책적, 인재 및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활용하고자 함
- 센터 개소와 함께 도매꾼은 3,800위안의 플랫폼 입주비를 면제

**지역****제목 및 주요 내용**

하는 특별 정책을 발표하여,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중국의 우수한 제품과 브랜드가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통해 중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임

- 인큐베이션 센터는 제품 홍보, 플랫폼 운영 관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과 인재 육성, 공급망 자원 통합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며, 입주 기업들에게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기여할 예정임

\* 출처: 中国新闻网

**태국**

○ 태국, 추석 연휴 한국인 관광객 유입 급증 전망

- 태국은 2024년 9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한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최소 2만 3,000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까지 약 122만 명의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했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일 평균 6,000~7,000명, 평일에는 약 5,000명이 방문하고 있음
- 태국 관광청은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이며, 양질의 제품과 볼거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또한 한국 대형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있으며, 9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 바이어 유치를 위한 '태국 골프 트래블 마트 2024'를 개최할 예정임. 태국여행사협회는 10월 서울과 광주에서 로드쇼를 개최해 태국 관광을 홍보할 계획임
- 태국 관광 사업자들은 일본과 베트남과의 경쟁 속에서도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음.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인 관광객 유입은 일본이 약 510만 명, 베트남이 약 360만 명으로 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출처: Bangkok Post, Thailand Business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태국, 중국산 수입품 규제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 태국은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8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약 2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불법 물품 유통 방지와 관련 규정을 검토 및 개정할 계획임
- 저렴한 중국산 상품의 유입으로 지난 1년간 태국에서 약 2,000개의 공장이 폐쇄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 공장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1% 감소해 제조업 부진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태국은 이미 저가 수입품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으며,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의 지방세법 준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중임. 또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는 값싼 중국산 물품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조치를 촉구함

\* 출처: The Edge Malaysia, Business Times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상품서비스세(GST) 재도입 검토

-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정 강화를 위해 GST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내각은 이미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임
- 2015년 나집 라작 전 총리가 약 6%의 GST를 도입했으나 2018년에 폐지되었고, GST 재도입의 대안으로 RON95 휘발유 보조금 제거가 제안된 바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말레이시아에 낮은 비율로 GST 재도입을 권고했으며, 주요 산업단체들은 정부 수입 증대를 위해 약 4% 수준으로 GST를 설정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음

\* 출처: The Edge Malaysia, Bloomberg

**지역****제목 및 주요 내용**

## ○ 말레이시아 사바 주, FDI 유치 증대 계획 발표

- 사바 주정부는 2040년까지 산업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더 비즈니스 쇼 아시아'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바 주를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산업 회의 및 전시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사바는 기존의 코타키나발루 산업단지, POIC 라하드다투, 시피탕 석유·가스 산업단지 외에 코타벨루드와 키마니스에 두 개의 새로운 산업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2년과 2023년에 총 110억 링깃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음
- 행사 중 말레이시아 홍신포드와 알케말 싱가포르 간의 유통 확장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으며, 홍신포드는 이를 통해 제품 생산 및 수출을 활성화하고 추가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음

\* 출처: Bernama, Daily Express

**ASEAN**

## ○ 아세안, 중국과 FTA 3.0 협상 가속화 예정

-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야동은 중국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3.0 협상을 가속화해 역내 경제 통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협상은 상품 무역, 투자, 디지털 및 녹색 경제를 포함할 것을 목표로 함
- FTA 3.0은 역내 산업체인 협력을 강화하여 외부 리스크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중간재 수출은 전체 수출의 47.3%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산 중간재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최종재로 조립되어 재수출되고 있음
- 서구권이 중국 경제에 대한 디커플링을 주장하는 가운데, 중국·아세안 간 교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양측은 지난 4년 동안 서로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출처: Manila Times, ASEAN.org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싱가포르

#### ○ 싱가포르, 태국과 교육 분야 협력 강화

- 싱가포르는 방콕에서 열린 제1차 싱가포르 교육 박람회를 통해 태국과의 교육 협력을 강조하며, 싱가포르 태국 강화 파트너십(STEP) 캠프와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논의함
- 현재 싱가포르의 약 70개 학교가 태국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 및 학생 교류, 인턴십 프로그램,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0명의 싱가포르 인턴들이 태국에서 학습 기회를 제공받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1998년부터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기업 SG 게이트웨이는 이러한 협력이 양국 간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개발 및 노동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함.

\* 출처: Thaiger, Bangkok Post

####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 FDI 활성화 위한 MOU 체결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조호르 싱가포르 경제특구(JS SEZ)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 MOU는 말레이시아의 '인베스트조호르'와 싱가포르 기반 은행인 'UOB' 간에 체결됨
- 이번 협약은 전기전자, 첨단 제조 및 공학, 디지털 및 녹색 경제, 생명과학 및 의료기술, 전기차, 항공우주, 항만 및 물류 등 주요 분야에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지원하는 '그린 레인'을 구축할 예정임
- UOB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말레이시아로의 FDI 유치와 JS SEZ의 성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해외 투자자들을 JS SEZ 내 가치 사슬에 통합해 지역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

\* 출처: Bernama, The Star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베트남

#### ○ 베트남,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부상

- 베트남은 낮은 임금과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의 기업들을 유치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미-베트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따라 중국에 대한 대안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주요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의 마이크로칩, 퀄컴, 인텔, 독일의 인피니온, 일본의 르네사스전자, 한국의 BOS반도체와 코아시아, 대만의 GUC와 패러데이 테크놀로지 등이 베트남 내 반도체 패키징, 디자인 센터 및 R&D 센터를 설립함
-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반도체 기술자 5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함하는 'CHIPS 법'을 통해 암코르의 신규 공장에서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Asia Times, KrAsia

### 필리핀

#### ○ 필리핀-중국 상공회의소 연합회, 마닐라만 지역 개발 추진

- 필리핀 중국 상공회의소 연합회(FFCCCI)는 마닐라만 지역 개발을 통해 필리핀에 더 많은 투자와 첨단 기술을 유치하고자 하며, 이 구상은 황 시리안 주 마닐라 중국 대사의 제안에 따라 필리핀-중국 관계 마닐라 포럼에서 발표됨
- FFCCCI는 마닐라만을 필리핀 경제 개발의 주요 허브로 위치시키고, 이를 통해 주요 지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필리핀의 지속 가능하고 신속한 첨단 기술 경제 성장을 주도할 계획임
- 이번 개발 계획은 필리핀 정부의 루손 경제 회랑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필리핀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Business Mirror, Philstar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일본

- **센다이권에서 물류 시설 건설 활발, 2024년 문제와 반도체 수요 대응**
  - 다이시 인근에서 최신 물류 시설의 건설과 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는 트럭 운전자의 잔업 규제 강화로 인한 '2024년 문제'와 반도체 관련 제조업의 집적, 도호쿠 지방의 방재 대책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미쓰비시지쇼와 미쓰이 부동산, 가시마 등의 대기업이 물류 허브 역할을 위한 대규모 시설을 개발 중임
  - 미쓰비시지쇼는 센다이남부도로에 인접한 지역에 자동화와 AI를 활용한 물류 시설을 30년대 초반에 개업할 계획이며, 미쓰이부동산은 미야기현 나토리시에서 두 번째 물류 창고를 2025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임. 가시마는 미야기현 도미야시에 위치한 물류 창고를 연내 가동할 예정이며, 이들 시설은 고급 기술과 AI를 적용하여 물류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임
  - 도호쿠 지역의 물류 효율화 잠재력이 높으며, 시장이 발전 중인 상황에서 최신 물류 시설이 잇따라 설립되고 있음. 특히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대만 반도체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반도체 관련 산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물류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임. 이러한 물류 시설들은 도호쿠 지방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니케이 속보 뉴스

- **이바라키현, 외국인 유학생의 현 내 취업 촉진을 위한 조직 발족**
  - 이바라키현은 외국인 유학생의 현 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바라키현 유학생 취업 촉진 컨소시엄'을 설립했음. 8월 23일에 발족한 이 조직은 이바라키대학교, 이바라키현 경영자협회, 이바라키 노동국 등 11개 단체로 구성되며, 세미나와 교류회를 통해 유학생들이 일본에서의 근무 방식과 현 내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임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유학생들의 현 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년별로 오리엔테이션, 현 내 기업 시찰 투어,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유학생과의 교류를 지속해 온 학생 단체와의 협력도 검토하고 있음.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임
- 현재 조요 은행을 비롯해 일부 단체들은 유학생 인턴을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참여 단체 간 선례를 공유하며 유학생 채용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있음. 이바라키현 경영자협회의 사사시마 리쓰오 회장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재 채용은 필수적이며, 컨소시엄의 발족은 기업에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 출처: 이바라키 현 지역 뉴스

### ○ 일본 산악 보전 서밋 개최, 등산로 황폐화에 대한 우려

- 일본의 등산로 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자연 친화적 복원 활동에 나서고 있는 전국의 민간 단체들이 모여 산악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일본 산악 보전 서밋'이 8월 24일부터 26일 까지 야마나시현 호쿠토시에서 열렸음. 이번 서밋에는 전국에서 약 400명이 참가했으며, 등산객 증가로 인한 보전 활동이 뒤처지고 있는 현황과 산 이용과 보전을 균형 있게 유지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이번 서밋은 2023년 홋카이도에서 열린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남알프스와 야쓰가타케 등을 보유한 호쿠토시와 일본산악보도협회 등이 주최 및 공동 주관했음. 첫날에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10개 단체가 참석해 등산로가 등산객 증가와 트레일런 대회 등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상황과, '근자연 공법'을 통한 등산로 보전 활동을 발표했다
- 서밋 참가자들은 보전 활동의 인력 부족을 주요 과제로 지적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하며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쿠토시에서 활동하는 호쿠토 산수호대의 하나야스 히로시 대표는 “일본의 산악 보전은 유럽 및 미국에 비해 취약하며, 지역 단체만으로는 유지가 어렵다”며 국가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호소했음

\* 출처: 니케이 속보 뉴스

### ○ 관광객 분산을 위한 관서 지역 순환 관광 플랜 제안

-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IR)는 관서 지역 관광의 목적지 분산을 목표로 한 순환 관광 플랜을 발표했다. 이 플랜은 '자연의 풍부함', '도시 관광 및 쇼핑' 등 테마로 나누어, 관서 거주 및 비거주 일본인과 체류 외국인의 선호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안했음. 향후 APIR은 관서관광본부와 협의하여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할 계획임
- APIR는 자체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관서 지역의 여러 현을 잇는 경로를 원칙으로 한 관광 플랜을 마련했음. 예를 들어, 외국인을 위한 '자연의 풍부함' 체험 플랜에는 시가현의 고히쿠, 와카야마현의 시라하마와 구시모토를 포함하고, '명소와 지역 문화' 체험 플랜에는 교토부의 단고와 우지, 나라현의 나라시 등이 포함되었음
- APIR는 2022년 이후 관서를 여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웹 설문 조사를 실시했음. 이 조사는 여행 중에 효고, 나라, 시가, 와카야마 중 하나 이상을 방문한 경험을 조건으로 설정하여 관서 전역을 균형 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음. 설문에는 일본인 500명과 외국인 20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여행 목적과 만족도를 지역별로 집계하여 플랜에 반영했음

\* 출처: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IR)